



순창군-신협 전북협의회,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순창군과 신협 전북지역협의회가 지난 10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최태일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임직원들은 연수와 워크숍, 순창투어 등을 진행하며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일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창군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2025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종표, 권기환)는 11일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1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지난해 특화사업 성과들을 공유하고 2025년 대강면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올해는 총 10개의 지역 복지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1일 1가구 사업(하하호호 마실탕방대)을 심도있게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대상자 욕구 분석, 그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기로 하였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집합교육 진행

정읍시가 노인복지시설과 돌봄 수행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어르신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0일 정읍시체육회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147개소, 노인단체 1개소,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 11개소 등 총 159개 기관의 44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북전농협 고향주부모임, 정월대보름 음식 전달

북전농협 고향주부모임이 첫 봉사활동으로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를 펼쳤다.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찰밥, 나물 김 등 정월대보름 음식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향주부모임이 결성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의미있는 행사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광 조합장은 "고향주부모임의 첫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 자원봉사 관리자 사업설명회 개최

법국민 자원봉사 캠페인 온기나눔, 도센터 추진현안 등 안내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11일 도 및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 관리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2025년 법국민 자원봉사 온기나눔 캠페인 등 주요 자원봉사 현안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연령별 자원봉사 육성, 기관 및 기업 사회공헌 지원, 자원봉사단체 협력, 관리자 역량강화 등 사업 설명을 마치고 시군센터 관리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점 사업 위주로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함께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

해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강조하였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봉사지원단 설치,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사고현장 관계인력 지원, IAVE(세계자원봉사협회) 니콜 사무총장과 공동행동 기획 워크숍 개최, 세계한인보조니스대회 행사지원, 전국 최초 자원봉사관리자 2급 자격증 취득(33명) 등 최대의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업무교류와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68만6,000여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김승현 남원소방서장, 'GBCH 챌린지' 동참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11일 김승현 서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기여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GBCH 챌린지는 하계올림픽 유치 구호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의미하며, 전북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캠페인 동참에 대해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되면 전 세계인들에게 전북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승현 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남원세무서 박재진 서장과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공은태 회장을 지목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군산 이성당, 드림스타트 아동 위한 '사랑의 생일케이크' 선물

대한민국 대표 빵집, 이성당이 보내온 사랑의 생일 케이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이성당이 '해피부브: 너의 생일을 축하해'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420여 명에게 생일 케이크와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산 지역 내 0~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무료로 제공되는 나눔 사업이다. 이성당은 2015년부터 참여해왔다. 2024년까지 4천 9백여명의 아동에게 생일 케이크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며 올해도 그 사랑은 이어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인 군산 이성당은 1945년 설립된 이후 오랜 전통과 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현재는 단순한 빵집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성당 김현주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성당 김현주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성당의 꾸준한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나눔문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성당 김현주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생일을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고창군자봉센터,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옥)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시작으로 세 번째로 지목을 받은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 성홍택 센터장, 자원봉사 임원 및 직원들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성공 기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응원에 참여했다. 성홍택 고창군자원봉사센터장은 2036 하계 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통해 전북의 발전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화합과 역량을 보여주는데 힘모아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북선관위, '깨끗한 선거, 한 획(劃)의 약속' 서예 작품 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들과 함께 '깨끗한 선거, 한 획(劃)의 약속'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서부지점에서 14일까지 열리며,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서예교실 수강생 20여명이 지난 한 달 동안 서예교실 활동을 하면서 쓴 공명선거 기원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회 첫날인 11일에는 남원지역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10여명이 전시회를 관람하며 새마을금고 회원들과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예교실에 참여한 이강운 회원은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작품을 완성했다"면서, "후보자와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전시회를 관람한 예비후보자들은 작품 하나하나에서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정당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전북은행, 전주 'JB희망의 공부방 제190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주시 으뜸지역 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개소한 으뜸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일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후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책상, 의자 등의 물품교체가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등을 새롭게 지원해 아동들을 위한 학습 환경을 조성, 개별 온라인학습을 위한 컴퓨터, 건강유지를 위한 손수건 및 블라인드 등도 설치,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오픈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으뜸지역 아동센터 차은숙 센터장,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만호 기자



메이저 스마트 건설 대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메이저스마트건설 황혜경 대표가 11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지연 출신인 황혜경 대표는 지난 2016년 김제 순동산단 길에 전기 공사업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메이저 스마트 건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김제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황혜경 대표는 지난 2023년에도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원 상당의 유과를 고향인 용지면에 재기탁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황 대표는 "고향 김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김제시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동동, 럭키지하수개발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민)는 지난 5일, 관내 럭키지하수개발(대표 이오영)에 착한가게 34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이오영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합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지인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착한가게를 통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운봉읍, 황산식당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가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관내 황산식당(대표 신명철)에 착한가게 13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현판 전달에는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동열 민간위원장과 손원철 협의체 위원(운봉읍 이장협의회 회장)이 참석, 신명철 대표는 "착한가게 기부 캠페인을 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결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은주 읍장은 황산식당 신명철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황산식당의 운봉 흑돼지는 저렴한 가격에 양도 많고 맛도 좋아 읍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식당이라 동참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